



높아진 하늘에 다이캐스팅 모형 항공기가 더욱 어울리는 계절이다. 물론 실제로 날지는 못하는 모형이지만 짙어진 가을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번 호에는 다이캐스팅 모형 항공기의 스케일과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팀 이성일 |

다이캐스팅 모형항공기의 세계로(2)

다양한 스케일, 다양한 브랜드

모형의 스케일은 실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다이캐스팅 모형 항공기의 경우 민항기는 1:400, 1:500이 가장 종류가 많으며 군용기는 1:72, 1:144가 많다.

이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친근한 크기가 손바닥에 들어가는 크기(Palm size)라는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는 편의상 민항기의 예를 우선하여 들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1:400 스케일 중심으로 각 브랜드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400 스케일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스케일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브랜드가 있으며 디테일도 비교적 좋은 축에 속한다.

Dragon Wings (<http://www.dragonmodelsltd.com/catalog/wings/>)

1:400 스케일 항공기 모형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의 재질은 동체는 금속이며 날개와 랜딩기어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개를 플라스틱으로 재현하면 견고성은 떨어지지만 정밀도와 사프함은 금속부품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랜딩기어의 착탈이 가능하고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어 이착륙이나 비행중인 모습의 재현이 가능하다. 비교적 여러 항공사의 모델이 골고루 출시되어 있다. 최근엔 1:72 스케일 전투기와 1:400 스케일 수송기 등의 드래곤 워버드(Dragon Warbird)라는 군용기 전문 라인업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다.



드래곤 델타737 파워퍼프걸

Jet-X (www.jet-x.com)

Dragon Wings의 자매 브랜드이며 열성적인 컬렉터를 위한 조금은 독특한 항공기 모델을 출시하는 브랜드다. 모델당 매우 한정된 수량만을 출시하여 희소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요즘은 그 활동이 부진한 편이다. 모델 재질은 드래곤윙과 동일하다.

Gemini Jets (www.geminijets.com)

1998년에 열성 항공기 모델 컬렉터들이 창립하였으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랜드이다. 비교적 고품질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패키지에 해당 항공기의 개략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 항공기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다. 모델 재질은 전 금속이며 일부 플라스틱 부품이 사용된다. 랜딩기어의 착탈은 불가능하며 금속제의 스탠드는 별매이다. 통상 제품당 2,500유닛만 출시하고 최근에 군용항공기만 따로 묶어 Gemini Macs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으며 보다 대형인 1:250 스케일 모델 라인업인 Gemini 250 브랜드가 소량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도 공식대리점이 있으나 수입상의 부진한 활동과 일부 불미스런 사태로 인해 브랜드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제미니 젯 Northwest A330-300

Aeroclassic (www.aeroclassic.info)

주로 클래식한 항공기나 항공사의 예전 도장 모델을 출시하는 브랜드로서 상당히 고품질의 디테일을 자랑한다. 특히 일부 모델의 경우 500대나 그 이하의 수량만 출시하여 초기에 제품이 매진된 후엔 상당히 고가격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전 기체 금속제이다.

Seattle Model Aircraft

예전에 737club이라는 브랜드가 다시 태어나면서 생긴 곳으로 주로 B737, DC-9 B-727 등 소형항공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Aeroclassic의 몰드를 사용하여 디테일이 뛰어나며 비교적 고가이다. Aeroclassic 몰드라 역시 전 기체 금속제이다.

Phoenix Models

투카노(Tucano)라는 스위스 회사의 후신이다. 투카노는 최악의 디테일, 몰드에 고가정책을 고수하여 컬렉터들에게 버림받아 망하게 되었는데 이후 새롭게 Gemini Jets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 피닉스다. 기존 Tucano의 모델이후 출시된 피닉스는 Gemini의 영향을 받아 디테일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으나 그 편차가 심한편이나 다른 브랜드에서 미출시된 항공기 모델 라인업이 많은 편이다.

BigBird 400

현재 출시된 1:400스케일 모델 중에서 가장 정밀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브랜드이나 출시되는 모델은 전부 항공사의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일명 비합

법모델이다. 그러나 지난 호에도 언급했다시피 이런 브랜드는 뛰어난 디테일과 특이한 항공기 및 한정수량 출시로 인해 컬렉터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비교적 고가이며 모델당 500 유닛 정도 출시된다. BigBird 500이라는 1:500 스케일 브랜드도 출시하고 있다. 최근들어 빅버드의 품질편차가 심한편이어서 종종 실망을 느낄 때도 있다.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비합법 브랜드가 독자적으로만 생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브랜드는 기존 합법인 브랜드에서 몰래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Dragon Wings는 Flying Color, DoDo Diecast, Twin Star 등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으며 Gemini Jets는 Dream Jets를, Aeroclassic은 Bigbird400, 500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브랜드는 따로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적어도 겉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

이 외에도 Aurora 400, Sovereign Models, Black Box Model, Skyjet400, Net Models, Blue Box 등의 마이너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다.



빅버드 버진747-400 Birthday Girl

기타 스케일

원래 다이캐스팅 항공기중 가장 유명한 스케일은 1:500이지만 최근엔 1:400에 밀리는 느낌이 적지 않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Herpa, Starjet, Bigbird 500 등이 있다. 이외에도 Schbak이라는 브랜드가 1:500 및 1:600 스케일을 출시하고 있지만 그 디테일이 최악이라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다.

1:200 스케일로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모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브랜드로는 Herpa200, Starjet200, Hogan Wings가 있으며 금속제로는 Inflight이라는 브랜드가 있다. 1:200 스케일 모델의 경우 위에 언급한 브랜드 모두 디테일이 대단히 뛰어나며 크기가 큰 만큼 아무래도 묵직한 느낌이 있다.

이번 호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항공기 모델을 구매할 때 각 모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호에는 이러한 모델들의 동지인 모델공항의 구성 요소와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 사진을 제공해주신 김남돈 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